

## 더민주 '친노' 대신 '친문'으로 채웠다

정세균계 몰락, 박원순계·손학규계 고전... '친문재인' 중심 재편  
광주·전남에도 친문 인사 줄줄이 공천... 대권가도 지원권 포석  
김종인 2번 셀프공천 정세성·도덕성 논란... 비례대표도 '역풍'

### 더민주 공천 분석해보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20일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그동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친노(친노무현) 색깔이 상당 부분 지워졌지만 그 빈자리를 친문(친문재인) 색깔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친노패권주의 때문에 분당의 아픔을 겪었는데 당에 또다시 친문 패권주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면면을 보면 범친노 중심에서 '친문재인' 세력 중심으로 재편이 진행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당내 최대 실세 계보로 꼽히던 '정세균계'가 몰락하고, 야심 차게 20대 국회 원내 입성을 준비하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상임고문 측 인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직접 제거하거나 손발을 잘라 버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더욱이 자신을 남성 최상위 순번인 비례대표 2번에 '셀프 공천'해 당 안팎으로부터 술한 비난을 듣고 있다.

김 대표는 친노 좌장 이해찬 의원, 친노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 등 상징성이 큰 친노 의원들을 공천 배제했다. 또 문희상·유인태·신기남·노영민 의원 등 친노 중진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김경협·전해철·윤호중·박남춘·홍영표·김태년 의원 등 지난해 문 전 대표 체제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친노 의원들은 대부분 공천을 받았다. 원외의 이용섭·김경수·정태호·최인호·한병도 후보 등 친문 인사들도 대부분 공천을 받았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양향자(광주 서울),

이용빈(광주 광산갑), 우윤근(광양·곡성·구례), 백무현(여수) 후보 등 친문 인사들이 공천을 받았다.

친노와 친문의 조건을 동시에 갖춘 인사들은 공천을 받고, 친노지만 친문인지 여부가 애매한 인사들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은 20대 국회에 입성할 경우 문 전 대표의 대권 가도에 있어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천 탈락한 이해찬 의원은 문 전 대표의 잠재적 대권 경쟁자로 꼽혀왔다. 실제 2007년 대선 경선에 참여한 바 있고 충청권에 일정한 영향력도 확보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도 옛 정동영계 핵심으로 친문 세력으로 분류하기에 거리가 있다.

〈2면으로 계속〉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텃밭 광주·전남 대진표 속속 확정 더민주·국민의당 "이제 본선이다"

### ① '선택 4·13' 총선 D-23

야권 심장부인 광주에서 제1당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총선 후보 경선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4·13 총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3·4·5면>

더민주의 후보들의 '양적 열세'로 인해 광주지역 8개 선거구 중 3곳에서만 지난 16일~19일까지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한 ARS 경선을 치렀다.

경선 결과 광산갑에서는 이용빈 후보가 임한필·허문수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북구갑에서는 이형석 후보가 이남재 후보를 꺾고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현역 박해자 의원이 경선에 참여해 관심을 모았던 서구갑에서는 전 전대협 의장이었던 송갑석 후보가 박 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며 이변을 연출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의 강기정(북갑) 의원의 공천배제와 박해자(서갑) 의원의 경선 탈락으로 인해 원외 인사들로만 총선을 치르게 됐다. 앞서 더민주의 서구에 양향자 후보를 전략공천했고, 광산에 이용섭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또한, 동남갑에는 최진, 북구갑에 정준호 후보를 전략공천했으며, 동남을에는 이병훈 후보를 최종 공천했다.

국민의당은 천정배 공동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을 단수공천하고,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5개 선거구에서 숙의배심원단 경선을 했다. 북구을에서는 후보자 1명의 경선 참여 철회로 경선이 취소되고 최경환 후보만 남았지만 단수공천자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경선 결과 북구갑에서는 김경진 후보가 68.8%로, 김유정(23.3%)·국성근(12.2%) 후보를 누르고, 서구갑에서는 정용화 후보가 41.3%를 얻어 송기수(38.6%)·이건태(20%) 후보를 제쳤다. 하지만 정 후보에 대한 신인가산점 부여 문제로 송 후보가 이의신청을 제기해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광산갑에서는 김동철 후보가 62.4%를 득표해 윤봉근(20.4%)·김경록(17.2%) 후보를 누르고, 서구갑에서는 정용화 후보가 41.3%를 얻어 송기수(38.6%)·이건태(20%) 후보를 제쳤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 ■ 더민주 vs 국민의당 광주 공천 확정자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동남갑	최진	(결선투표)
동남을	이병훈	박주선
서구갑	송갑석	(재심신청)
서구를	양향자	천정배
북구갑	정준호	김경진
북구를	이형석	최경환
광산갑	이용빈	김동철
광산을	이용섭	권은희

3%) 후보를 꺾었다. 광산에서는 권은희 후보가 76.2%의 압도적인 득표로, 각각 11.9%를 얻은 고원·최선욱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동남갑에서는 장병완 후보가 배심원 투표에서 39.7%를 얻었지만, 40%를 넘지 못해서 2위(36.8%)를 한 서정성 후보와 결선 투표까지 벌였다. 하지만, 장 후보 측에서는 1차 투표에서 40%를 넘었지만, 배심원 득표율을 잘못 계산했다고 반발해 이날 밤 9시 현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한편,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전남지역 후보도 경선을 통해 속속 결정했다. 더민주의 순천에서 노관규 전 순천시장, 영암·무안·신안은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여수갑은 송대수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경선에서 승리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당도 나주·화순 송금주 후보,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후보, 해남·완도·진도 윤영일 후보, 여수시 갑 이용주 후보가 경선에서 이겨 최종 후보가 됐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매화 흐드러지게 핀 광양 매화마을. 절기상 봄이 온다는 '춘분'인 20일 광양 다압면 매화마을을 찾은 행락객들이 흐드러지게 핀 하얀 매화꽃 사이를 걸으며 봄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전공노 가입 투표' 정부·광주시·노조 갈등 고조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간부들의 무더기 고발사태를 촉발한 전공노(전공공무원노동조합) 가입 추진을 위한 투표를 21일 재개할 예정이어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강경대처하고 있는 행자부와 갈등 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 본격화로 공무원들이 줄 소환되면 근무 분위기가 저하와 행정공백 등 부작용이 예견되

기 때문이다. 20일 광주시와 광주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21일 전공노 가입 투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 노조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 광주시노조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행자부 관계자 2명(사무관급)을 상대로 고발인

## 광주시 공무원 노조 "오늘 재개" 검찰수사 본격화...행정공백 우려

조사했다. 21일 오전에는 광주시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검찰은 행자부가 광주시노조 강승환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4명을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에 착수했다. 행자부는 이번 투표에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또다시 고발사

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시청 안팎에서는 "광주시 공무원 노조 간부 14명이 고발당한 상태에서 또다시 고발사태가 이어지면 결국 행정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광주시 모든 공직자가 '차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에너지 밸리 조성' 등 굵직한 현안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내분 조짐까지 감지되고 있어 안팎의 우려를 증폭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2월 서울고등법원 대동재판부 고법판사(지방부정판사)를 끝으로 21년의 공직생활을 명예퇴직하고 **법무법인(유) 동인**의 구성원변호사로 새출발하오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화순군 출생, 영문고(34회), 서울대 법대(87학번)·ALP(13기)
- 고려대 정책대학원 CR과정(187)
- 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 서울중앙지법 등 판사, 진안군 선관위원장
- 전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고법 대동재판부 제1기 고법판사(지방부정판사)
- 2014·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여운국 올림**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삼성생명 서초타워 15, 17, 19층)  
■ 대표: 2046-1300 ■ 직통: 2046-0644 ■ 팩스: 3482-1177

##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미래

### The E-Class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11번지 / TEL 062226-0001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Mercedes-Benz